

# '무더위' 광주·전남 온열환자 46명

### 3억4000여만원 피해...해상 적조 우려 '낮기온 35도 이상' 광주전남 폭염 특보

광주와 전남지역에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수난사고와 온열환자·가축 폐사 등 무더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광주·전남재난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폭염으로 인한 광주 지역 온열환자는 21명이다. 이중 16명은 50대~90대이며 온열환자 3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의 경우 25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치료를 받거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께 구례

군 토지면 지리산 피아골 계곡에서 A(67) 씨가 물에 빠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더위를 피해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더위로 폐사해 1억7300여만원의 피해가 났으며 오리 4농가 6000마리, 320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 인해 적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재 광주를 비롯해 장흥·화순·나주·함평·순천·광양·여수·보성·구례·곡성·담양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무안과 진도·신안(흑산면 제외)·북포·영광·영암·완도·해남·강진·고흥·장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광주시상청은 "본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건강관리와 가축·농작물 피해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 日폭우피해 지역 153개 학교 휴교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히로시마현 등의 서일본지역에서 153개교가 휴교 중에 있으며 이 중 80%는 학업 재개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16일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히로시마, 오카야마(岡山), 에히메(愛媛) 등 3개 현의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전체 공립 초중학교 1650개교 중 13일 기준으로 휴교중인 학교는 히로시마 124개, 오카야마 12개, 에히메 17개교다.

이중 히로시마시 등의 31개교는 학업 재개 시기가 결정됐지만 나머지 80%는 통학로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 등으로 아직도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학업 재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수로, 화장실 사용 및 급식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철도가 운행되지 않아 통학 수단 확보가 어려운 학교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방학 전에 재개하는 것을 이미 단념한 25개교의 경우 학교가 피난소가 된 경우가 많다.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던 히로시마현 구레시 텐노지구의 경우 중학교 운동장에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유입됐으며 초등학교도 주변 지역이 침수되면서 피난소가 됐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은 오카야마현 구라시(倉敷)시 마비초의 경우 전체 학교의 80%가 여름방학 전 재개를 단념했다.

대부분의 폭우 피해 지역은 오는 20~21일에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따라서 그 전에 학교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폭우 피해 이후 장기기간동안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의 교육위원회는 학급 담임이 가정을 방문해 학생들의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히로시마현의 경우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사를 파견해 학생들의 카운셀링도 한다.

폭우 피해 지역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학기를 일찍 시작하거나 여름 방학중에 보충 수업을 하는 등의 대처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미 경찰 3명에 총격 가한 용의자 사살돼

미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경찰 3명에게 연쇄적으로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과의 대치 끝에 사살됐다고 캔자스시티 스타지가 15일 보도했다.

제이컵 베치너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가 미 프로야구(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홈구장인 카우보이 스타디움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모텔에서 3번째 총격 후 경찰과 대치하던 중 사살됐다고 말했다.

캔자스시티 스타지는 총격을 받은 경찰들의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3명 모두 생명이 위태롭지는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매사추세츠주 웨이머스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관을 공격해 빼앗은 총으로 총격을 가해 마이클 체스너라는 경찰관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 행인 2명이 숨졌다.

웨이머스의리처드 그립스 경찰국장은 총격 용의자 에마누엘 로페스는 체포됐다고 말했다지만 로페스에 대한 더이상의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20층서 추락한 아이, 30분 버티다 구조

아파트 20층에서 추락한 5살 어린이가 난간 창살에 매달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지난 21일 중국 쓰촨성 대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5세 아동이 난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아동을 본 이웃 주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몇 분 뒤, 경찰 7명이 아파트로 도착해 아동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 아파트 이웃 주민들도 18층과 19층 사이로 향한 뒤 옥시 모를 추락에 대비했다.

아이의 다행히 난간을 붙잡고 있다가 발견된 지 3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난간 아래에는 다행히 아이가 간신히 발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작은 벽이 있어 아이가 몸을 의지할 수 있었다.

아이의 가족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아이가 없었다"고 말하며 아바 아바 평소처럼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



“물놀이 좋아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 바닷분수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 폭염 도피처 무더위쉼터 발길...체계적 관리 필요 목소리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덕분에 숲통이 트이네요. 다만, 체계적인 쉼터 관리와 운영이 필요해요.”

폭죽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16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어울림경로당.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이 경로당에서 10여 명의 노인이 땀방기(에어컨) 앞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경로당은 후텁지근한 바깥과는 달리 쾌적했다. 벽걸이형 선풍기는 꺼져 있었지만 에어컨만으로 실내 적정온도인 2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잠을 본 뒤 오전 10시30분 전후에 경로당을 찾아 오후 7시 정도까지 머물다 귀가하는 게 일상이라고 전했다.

배모(76·여)씨는 “경로당에서 도보로 5~10분 거리 주택에 사는 노인들이 쉼터를 주로 찾고 있다”며 “이런 인식처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더위쉼터의 취지가 무색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 지원비가 부족한 편이라는 주민의 불만소리도 나왔다.

북구 두암동경로당은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1층에 마련된 여성 회원 경로당 내부는 문이 잠겨 있었고, 2층 남성 회원 전용 경로당에도 주민이 없었다.

“1층은 지난해 말 설치한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경로당 회장은 설명했다.

북구 연수경로당에 홀로 있던 회

장 양모(71)씨도 “지원받는 냉방비가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라며 “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에어컨 가동을 자제한다”고 말했다.

북구 한 아파트 내부 경로당에서 양파를 깎던 중국요리를 시켜 먹던 할머니 11명도 “액수에 맞춰 쓰다보면 에어컨을 틀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경로당이 회원제로 운영돼 일부만 찾는 점,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마련한 폭염 대비 건강수칙 포스터도 일부 쉼터에만 부착된 점, 관공서·금융기관 등이 형식적인 쉼터로 활용되는 점 등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아울러 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시설 점검, 정기적인 재난도우미 방문, 실용적인 구급약품 보급도 요구했다.

## 전교조 전남지부 “초등 교사 사망 진상규명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우울증이 아닌 과도한 업무에 따른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것은 우울증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와 학교 측의 성과 내기가 화를 불렀다는 데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숨진 교사는 담임과 동시에 연구부장 보직교사로 5개의 공모사업 중 3개를 혼자 수행하며 업무 과중과 성과 요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변에 호소했다”며 “급기야 2주 전에는 서울의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해당 교사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다는 호소를 했으나, 학교는 개인의 건강문제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학교 측은 내부 교사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숨진 교사의 업무를 감당시켜줬다”며 “지금은 학생을 보호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낮 12시28분께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정환 기자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